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국제통상학과	이름	심xx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Huntsville, Texas
파견대학	Sam Houston State University	파견기간	1년(2개 학기: Fall/Spring)
귀국여부	*예*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제가 다녀온 샘 휴스턴 주립대학교는 텍사스 주의 헌츠빌이라는 도시에 위치해있습니다. 헌츠빌 도시 자체가 대학교가 가장 큰 상권이라서 보통 차 타고 5분에서 6분정도면 큰 마트나 가게들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 학생아파트먼트 거주시설들이 많아서 걸어서 갈 수 있는 CVS나 패스트푸드점은 가까이 있어서 걸어서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건물들은 대부분 리모델링을 해서 깔끔했고 쾌적했습니다. 캠퍼스가 많이 크지 않아서 걸어서도 충분히 다닐만한 거리였기 때문에 수업 중간 중간 이동하기가 수월했습니다.*
2018-2학기 수업	*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 *1. Public Speaking* *이 수업은 말 그대로 발표 말하기를 배우는 수업입니다. 말하기 스킬을 배우는 이론적인 느낌보다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같이 PPT를 만들어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고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주제들이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미국 학교의 발표하는 분위기나 방식들을 배우고 느낄 수 있고 스스로도 영어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2. Composition 1* *영어 작문 수업으로 이 학교 1학년들은 필수로 배우는 수업입니다. 학교 자체에서 발행하는 책을 필수로 사야 했는데, 제가 들었던 교수님은 책이 없어도 감점을 주거나 수업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론내용은 판서를 해주셨습니다. 이 수업도 시험과 별도로 2주마다 글쓰기 과제를 내주는데, 그 토픽에 맞는 글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면 되고, 교수님께서 매번 과제*

	제출 후에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영어 글쓰기를 많이 해보고 싶다면 좋은 수업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배우는 문법과 다른 내용의 세부적인 글쓰기에 필요한 문법들도 배울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3. United States History To 1876 (HIST1301)* *미국 역사 수업인데 완전 기초적인 수업이어서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무난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미국 역사 수업은 2개의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HIST1301은 그 중에서 1번째 파트로 선사시대 이후 아메리카 대륙 발견부터 시작해서 미국 독립전쟁까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세계사 내용과 많이 일치하고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돼서 영어로 다 이해하지 않아도 수업을 이해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제가 들은 교수님은 Kristine Henze 교수님이었는데, 이 교수님은 수업에 PPT자료를 따로 제공하지 않아 필기를 해야 하지만, 시험을 따로 오프라인으로 보지 않고 각자 온라인으로 교수님이 올려놓은 시험 문제에 대해 서술형으로 답변하여 워드 파일만 제출하면 끝이라 간편합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 조별로 역사 주제로 짧은 토론을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매주 월요일 에세이를 제출합니다. 토론 내용은 교수님이 토론 후 매번 정리해주기 때문에 에세이에 그 내용만 핵심적으로 적기만하면 됩니다. 시험과 에세이 둘 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점수 받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4. Business Legal Environment* *이 수업은 미국 법률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는 수업입니다. 한국과 다른 미국의 법 체계와 사고방식을 배울 수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수업은 교수님이 필기해주는 내용만 노트에 정리해서 외우면 시험은 무난히 통과할 수 있고 과제는 따로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같은 과목이어도 다른 교수님은 수업방식, 시험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교수님별로 강의후기나 계획서를 잘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1학기 수업	*1.United States History Sn 1876 (HIST1302)* *이 수업은 위에 들었던 HIST 1301수업에 이어지는 수업입니다. 미국 독립전쟁 이후부터 근 현대사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같은 교수님 수업을 수강해서 시험방식과 수업방식은 모두 동일했습니다. 다만 독립전쟁 이후부터 미국의 현대사 과정까지는 한국에서 배웠던 내용보다 자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상식으로 이해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인권 및 사회 운동 과정 등을 다루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토대가 되는 사고방식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2. Principles of Microeconomics* *이 수업은 말 그대로 '미시경제학원론'이라서 배우는 내용은 한국 경제*

	수업과 동일할 것입니다. 다만, 제가 들었던 교수님은 책을 따로 구매하지 말라 하셨고 PPT자료와 판서 필기로도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수업시간에 다루는 예시들이 간단해서 이론을 이해하기에 쉬웠습니다. 시험 말고도 숙제를 온라인에서 경제 문제를 푸는 걸로 제공해주는데, 이 온라인 과제는 기간 내에는 여러 번 응시가 가능해서 점수 받기에도 좋고 이 때 연습한 문제가 그대로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하기에도 좋았습니다. *3. Principles of Sociology* *사회학과 학생들이 듣는 1학년 기초수업입니다. 말 그대로 사회학의 전반적인 기본내용을 배우는 과정이고 평소에 인문학이나 사회문제 등에 관심이 있다면 그에 관련된 기초이론들을 배울 수 있어서 적극 추천합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사회문화 수업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특히 순천향대학교에 인문학을 배울 수 있는 교양 수업들이 제한적이라 아쉬웠던 분들한테는 재미있고 유익한 수업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수업에서 사라고 했던 책은 참고용이고 교수님이 판서를 해주셔서 그것만 필기하라고 교수님께서 당부하셨고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Extra credit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셔서 시험과 중간중간에 보는 퀴즈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도 보완이 가능합니다. 제가 들은 교수님은 Dr. Constance r교수님이었는데 이 교수님의 사회학원론 수업은 다른 교수님들 수업과 다르게 참여 형 수업이라 매주 토론과 한번의 조별 발표가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순 있지만 미국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해서 적극 추천하는 과목입니다.* *4. Business Analysis* *이 수업은 비즈니스 분석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과목입니다. 제대로 된 분석 수업은 3학년 과정이고 이 수업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이 과목에서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을 그대로 배웁니다. 방정식부터 시작해서 확률과 통계 같은 내용을 다루는데, 의외로 수능 공부 때 했던 내용이고 더 단순하게 배울 수 있어서 시험보고 수업을 듣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야 하는 온라인 책이 비쌌는데, 저는 운이 좋게도 담당 교수님이 중국인 교수님으로 유학생들의 사정을 많이 배려해주셨고 책도 빌려주셔서 따로 사지 않고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 빼고는 매주 풀어오는 간단한 수학문제 풀이과정만 제출하면 됩니다. 고등학교 때 수포자였어도 공식외우고 수만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수학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프로그램 운영	*담당부서는 International Office라고 따로 국제 학생들을 담당하는 곳이 있어서 이 곳에서 국제 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도 열어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체적으로 차가 없는 유학생들 위해 주마다 2번씩 큰 마트에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딱히 차가 없어도 장보고 지내는 거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 문화권에서 온 교수들과 직원들도 많아서 International fair같이 서로 모여서 인사를 나누고 친목을 다질 수 있는 행사도 있었고, 각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자기 나라별로 작은 축제로 열어서 다양한 외국 문화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내셔널 오피스에서 주최해줬습니다.) 또한, 외국인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센터랑 헬스 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지역의 특성상 매우 덥고 습합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의 경우, 폭우가 내리는 경우는 차량이 잠길 정도긴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헌츠빌은 그렇게 침수될 정도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더운 날씨인 만큼 대부분의 경우 건물 내에는 에어컨을 진짜 낮은 온도로 조정해놔서 건물 밖과 안의 온도 차가 크므로 수업들을 때 그런 부분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밖에만 안 나가면 더울 일이 전혀 없고 겨울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춥진 않은 편이지만 꽤 쌀쌀하므로 어느 정도의 겨울 외투는 챙겨가면 좋습니다.*
안전	*학교 자체에 security 들이 따로 있어서 밤이나 위험하고 무서울 때, 연락을 취하면 그 사람들이 동행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참고하면 좋습니다. 사람들이 학생들과 근처 주민들 빼고는 사람 자체가 많은 도시가 아니어서 큰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다만 밤중에 혼자 돌아다니지 말고 문 단속을 늘 꼼꼼히 해야 합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기타( )* *저는 같이 교환학생을 간 분들과 함께 Armory at Sam Houston 이라는 외부 숙소와 계약하여 지냈습니다. 다른 지역의 주거 계약 조건과 다르게 헌츠빌에 있는 대부분의 숙소는 모두 학생대상이라 무조건 계약 조건이 12개월이 기본입니다. 저와 일행들 같은 경우는 따로 딜을 해서 10개월 조건으로 계약했지만 기본은 12개월이므로 외부 숙소를 계약할 경우,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지낸 숙소는 학교 캠퍼스 바로 옆이라 걸어서 몇 분만 가면 바로 학교 캠퍼스와 이어져 있어서 학교 가기가 수월했습니다. 제가 첫 입주자였기 때문에 시설은 매우 깔끔하고 완벽했습니다. 다만 가격이 다른 곳에 비해 좀 비싼 편입니다. 미국 숙소 특성상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경우도 많고 벌레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가격과 숙소 상태를 잘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학교 Meal Plan (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직접 요리 (○) 기타 ( )* *초반에는 학교 캠퍼스 내에 위치한 식당들(서브웨이 같은 프랜차이즈가 많습니다.)과 학교 카페테리아를 주로 이용했고, 나중엔 직접 음식을 조리해서 먹기도 했습니다. 사서 먹는 것이 간편하지만 음식의 종류에 제한이 있고 대부분 패스트푸드가 대부분이라 장보고 간편하게 만들어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까운 한인마트는 Houston에 위치해있어서 한인교회에 갈 때마다 라이드를 받아서 한국음식을 먹거나 한인마트에서 장을 보고 와서 음식을 해먹었습니다. 생각보다 텍사스 물가가 싼 편이라서 미국 마트에서 장을 보면 가격 대비 많이 음식들을 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교통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저는 학교 캠퍼스와 바로 옆에 있는 숙소에서 지내서 학교는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장을 보거나 주변에 나가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차가 있는 친구들이 라이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가끔 우버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약 1460만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200만원	

Fees	*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	*따로 fee를 내지않음.*
보험료	*약 200만원*	*자매대학의 보험을 필수로 들어야 함.보험비랑 따른 fee합쳐서 $1864*
숙소	*약 900만원*	*매 달 수수료포함 $800+관리비*
식비	*150만원*	*한 달에 평균 15만원 정도 (교회랑 다른 모임에서 식사를 많이 대접받아서 식비를 많이 지출하지 않은 편임.)*
교통비		
책값	*약 40만원*	
기타1		
기타2		
합계	146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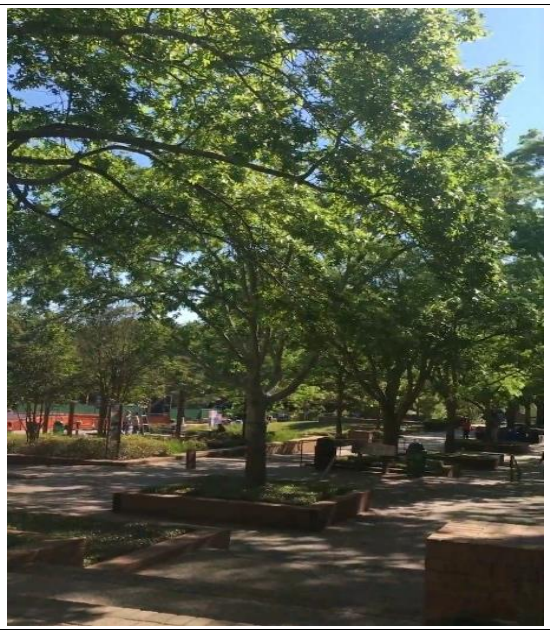
5. 출국 전 준비사항

학교 캠퍼스가 자꾸 금방 찬다고 담당자들이 재촉을 하지만, 학기 시작 후에도 학교 신설 기숙사 말고도 약간 외부에 있는 기숙사도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기숙사가 정말 가고 싶으면 미리 연락을 다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외부 숙소 계약할 때, 한 번 계약하면 취소가 원래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관련한 규정이나 이런 세부사항 같은 안내서는 꼭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선 이미 안내한 내용을 내가 실수로 몰랐다고 해도 그 책임은 내가 져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비행기표 같은 경우는 어지간하면 왕복으로 미리 끊어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인터넷 뱅 킹같이 본인확인이 필요한 일을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 있을 때 미리 어플을 다운로드 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출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이번 교환학생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은 어학 실력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같은 미국이고 같은 학교라도 한국의 대학교보다 다양한 문화권의 친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생각보다 실제로 외국인 친구들과 살고 지내면서 부딪히는 문화 충돌은 정말 많습니다. 사소한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때로는 화도 나고 속상한 점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점들도 받아들이고 해결하는 방법을 몸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학 실력은 확실히 자주 얘기하고 많은 시간을 외국인 친구와 보내면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은 수의 친구를 사귀진 않았지만, 다양한 문화권의 소수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실력이 상승했습니다. 굳이 친구가 많지 않아도, 꼭 많이 어울려야 좋은 것은 아니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새로운 나라에서 처음 적응할 때 어려운 일도 많겠지만 무조건 자신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도 어색하고 버벅거리니까 부끄러울 수도 있고 실제로 말도 잘 안 통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은 외국에서 공부하러 온 학생으로서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고 상대방이 내 말을 못 알아듣더라도 차분히 끝까지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처음이라 설렐 수도, 떨릴 수도 있지만 그런 경험 하나하나가 제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출 비용 같은 경우는, 저는 운이 좋게 다른 한인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식비나 교통비를 많이 지출한 편이 아닙니다. 보통 최소 $2000 정도는 생각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table>
<tr><td> </td><td></td><td>  </td></tr>
<tr><td>학교 캠퍼스1</td><td></td><td>학교 캠퍼스2</td></tr>
</table>

지내던 숙소 거실(쉐어형식)		지내던 숙소 개인 방
학교 카페테리아		캠퍼스에서 집 가는 길 보이는 사진이 신설 기숙사